COVID 19

2017-13846 양준엽

과학자들 또한 코로나를 대중과 비슷한 시기에 존재를 알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은 유전적 구조가 가장 비슷한 사우르스코로나에서 유래되었다. 처음 코로나는 우한 수산시장에서 발생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9년 12월 1일 병원에서 발생했다. Spike protein이 감싸고 있는 구조다. DNA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RNA 바이러스이기에 호스트에 더 접근하기 쉽다. 기본적으로는 코로나는 리보좀의 translation을 이용해 자신의 코딩된 유전정보를 복제한다. 코로나는 면역체계의 특정 경로를 막아 면역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한다. Innate immunity의 기본원리는 t세포가 2중 rna구조를 바이러스로 인식해 다른 세포들에게 알린다. Adaptive immunity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킬러 t세포등과 같이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항체반응은 항원이 특정된 이후 급격히 양이 증가하다 시간이 지나며 양이 낮아지고 메모리에 저장된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도 시간이 걸릴뿐 해당 바이러스에 한정해서는 결국 항체를 만들 수 있다.